

##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 5강 온전함의 열쇠(2) : 언어

야고보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의 신앙의 특징은 통합적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바 된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습니다. 심기어진 말씀은 자라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긍휼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언어, 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그런데 야고보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1.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구체적인 말의 파괴적인 위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 이유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 된 우리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도 이 선생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생(디다칼로스-)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는데요, 유대공동체의 랍비나 서기관과 같은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사도, 예언자와 함께 선생, 교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선생의 직분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아니라 인기와 명망과 같은 잘못된 동기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히 이들로 인하여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교회 내에서 심하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교사직의 부작용을 배경으로 하여 야고보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많이'라는 단어는 '폴로이(πολλοί)'인데요. 부사로서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전문적인 직책으로서 선생을 향해서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매사에 선생 노릇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 노릇, 즉 매사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선생 노릇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함부로 선생이 되면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은 것을 못 지키는 사람보다도, 가르치고도 못 지키는 사람의 책임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10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을 연구하고, 먼저 스스로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가르쳤습니다. 보통은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말 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2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말이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만 있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2.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즉,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1절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이 죄인 된 증거로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철학, 예를 들면 스토아학파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영혼이 몸과의 관계는 말과 말 타는 자, 혹은 배와 배를 조종하는 사람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인간의 이성이 바로 서면 자연히 교정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당시의 철학을 뒤집어 버립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

먼저, 3절을 보시면 혀를 말에게 물린 재갈로 표현합니다. 재갈은 작지만, 그것 하나로 그 힘센 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도 그와 같지요. 말은 내뱉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의 목을 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언적 능력이 있습니다. 입을 통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씨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말은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

나니

배에 달린 키로 설명합니다. 바다에 광풍이 불면, 배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때, 그 배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언어가 그 큰 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키와 같다는 겁니다. 말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구약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십니다. 결과는요? 그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해주셨어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못 살겠으면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 3. 인간이 타락하면서 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3, 4절에서는 혀의 효력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묘사한 반면, 5절에서는 부정적인 파괴력을 옮겨줍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곳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서 가을과 봄에 각각 한 달가량 우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온 들녘에 풀과 엉겅퀴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자랍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곧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원래가 건조한 곳이라 바싹 말라 버립니다. 이 때 성냥 한 개비만 갖다 부치면 온 들녘이 불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사소하게 내뿜은 말이 삶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왜 이렇게 되었는데를 설명합니다. 6절을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 불의 정체를 밝힙니다. '불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아니라, 타락한 세계를 말합니다.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랐어요. 흠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파트너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한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고, 그 거짓말에 아담과 이브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로 그들의 말도 타락해서, 그들의 말이 의심하는 말, 탐욕의 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지옥 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과 마귀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근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함께 말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우리의 말이 온전했습니다. 이브를 처음 본 아담의 고백은 '이는 내 살중의 살이요 뼈중의 뼈로다' 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타락과 함께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도 타락했습니다.

#### 4. 언어의 타락은 두 마음에서 기인합니다(7,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쉽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도마뱀이나 파충류도, 야생동물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야생동물들이 불을 뛰어넘고 공을 굴립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길들일 수 있고 심지어 벌레나 곤충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혀입니다. 타락의 결과....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말이 많아 좀 제어해야지' '나는 너무 수다스러워 입에 반창고를 붙이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라며 누구나 한두 번쯤 고민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되던가요? 부자연스런 침묵으로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이 말의 원래 의미는 '침이 없다, 정함이 없다(아카타스타톤)'인데요. 이미 야고보서 1:8 에 나오는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자의 특징입니다. 에덴동산에 살았지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아담처럼,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한 마음, 두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 났나요? 혼돈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9-12절을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인간의 이중성으로 드러나는 거짓된 세계를 자연의 세계와 비교하고 있지요. 먼저 샘물입니다. 샘물은 한 원천에서 솟아나고 그 물줄기가 닿는 곳까지 같은 원천의 물을 공급합니다. 원천이 단물이라면 중간에 쓴 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무입니다. 나무는 제각기 자기만의 뿌리를 내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달라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과 근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분주한 마음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늘 자기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혼돈이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과 같이,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 5. 우리의 말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흠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 태어날 때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 DNA(유전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은 심겨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어서 이제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계속해서 약 1:21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전에는 황무지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생명을 잉태한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 심어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심긴’ 하고 ‘뿌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렸다”고 할 때보다 “심었다”고 할 때 더 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기억하십시오. 신자라면 우리는 이미 말씀이 심기워있어요.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 6.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을 심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되새김

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로 바꿉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한숨이 찬양으로, 창 45:3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수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의 특징이 있어요. 그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요, 생명의 언어였어요. 요셉의 언어는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이 축복을 얻기 위함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핏속에 말씀이 흐르고, 우리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고, 우리 언어 속에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 성품 속에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된 언어, 행함이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힘 있고 강력한 언어는 실천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1960년대 이후 낙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미국의 복음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조찬기도회가 열리면서 수많은 낙태반대 설교가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는데요. 그중에 1994년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있었던 설교가 가장 강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날의 설교자는 높고 주름진 알바니아 출신의 할머니로. 더듬거리면서 꾸밈없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제게 주세요." 그 설교자는 바로 마더 테레사였고, 그녀였기 때문에 그 설교는 레이저처럼 강하게 다가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천된 언어가 생명의 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는 첩경입니다